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부가 누구신지 배웠어요. 첫째로 창조주이시고, 둘째로 자존자이시고 셋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구요. 다들 기억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지난 주에 집중 안하고 딴 생각했어도, 오늘만큼은 딴짓하지 말고 엄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 다른 설교도 당연히 집중해서 들어야겠지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 믿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보도록 해요. 지난 번에도 설교에서 말했지만 세 분에 대한 이해는 곧 성경을 바로 읽어요, 비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일종의 열쇠 같은 거예요. 이를 소중히 지키고 간구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나님이세요. 참하나님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99.9999%가 아닌 100%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설교에서 대전제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버려서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분이지만 한분이세요. “아니 전도사님? 세 분이라면서요? 근데 한분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나면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질은 하나라는거예요. 여러분 애플, 샘송, 샤오미야옹 다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휴대폰을 만든다는 역할은 같잖아요. 이처럼 세 분은 같은 분이지만 각자 다른 일을 맡아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즉,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주실 수 있던 까닭 중 하나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르게 ‘죄’가 단 1%가 없으세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성을 띄시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해요. 위의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예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요. 만일 길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요 하면 그 사람 말 무시하고 갈 길 가면 되어요. 그건 이단이거든요. 예수님께선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청결하게 살아도 우리 죄를 직접 사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참 인간이십니다. “영 전도사님? 아깐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인간이실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뭐죠? (대답을 듣고) 그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근데 생각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 인간을 지으시면서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선

영이세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저처럼 몸이 따로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 제사가 한계가 있어요. 이 제물을 드린 사람만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길 원했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니 이방나라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인데, 자기들 죄 용서 받겠다고 제사를 드렸겠냐구요~ 그래서 동물보다 더 큰 개념이 필요했는데 동물들 위에 있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져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증거도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퀴즈 육신, 곧 인간이면 무조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 아니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혈통을 보여주세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구요.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아예 못을 박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던 것이죠. 근데 꼭 이단, 사이비 종교는 예수님이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었다.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은 아니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분명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당시에도 예수님은 단지 신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성경을 쓴 저자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어요. 여기서 속죄제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어요.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5장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속죄제라는 건 내가 비고의적이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과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가지고 태어난 부정결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거든요. 일단 네 친구 나와봅시다. 자, 우리 XX이가 지난 주에 교회에 나왔어?(나왔다면) 근데 지난 주에 집중 안했어. 그럼 이 양1 한테 "XX이가 지난 주에 교회에 안 나왔어" 하면서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XX이의 죄가 양1한테 간답니다. 그리고 이 양1이를 (베는 척하면서) 이렇게 베고, 양1을 태워요. 그리고 베면서 나왔던 피는 번제단 네 뿔에 바른 답니다. 그리고 XX이가 이번엔 '어? 지난 주에 교회에서 비속어 사용했네?' 그럼 양2한테 'XX이가 지난 주에 교회에서 욕한 걸 양2한테 옮기느니라~'하고 안수해주고, 또 태우고,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른 답니다. 마지막으로 XX이가 '또 속제 안하고 공부 제대로 안했어.' 그러면 "양3이한테 XX이가 공부 열심히 안하고 속제 안한 것을 옮기느니라"하고 안수하고 죽이고 또 태우고, 피를 뿌렸어요. 이런식으로 제사가 행하여졌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고 속죄제를 드리길 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민족은 이스라엘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화1) 링컨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데요. 가끔 링컨은 창문으로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한 가난한 친구가 아이들에게 따를 당했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두에도 끈을 내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보아라 하였는데 그 친구는 가난해서 그렇게 못 했어요. 그것을 본 링컨은 아이에게 새 옷과 새 구두를 선물하여서 가난한 친구를 놀리던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웃는 마귀들, 그리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를 새 옷과 새 구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들이 우리를 넘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배웠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며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다.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만 하던 행위이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온 나라가 용서 받을 수 있으려면 짐승보다 더 큰 인간을 속죄물로 바쳐야 하는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흠이 있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참하나님이시고, 속죄물이기 위해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분별하는 법이 가장 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하여 배울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왜 그 분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특징을 믿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예수님 오늘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어서 죄가 없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것을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믿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친구들에게 허락해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